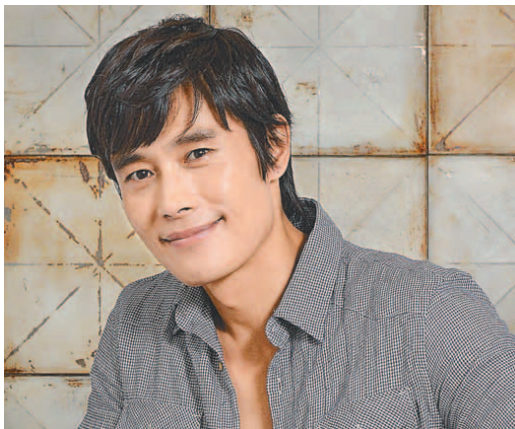




이병헌 '월드스타는 바쁘다'

할리우드·한류 활동 스케줄 빼곡

톱스타 이병헌(사진)이 한류 그리고 할리우드 다지기에 다시 나선다.

2월 말 주연을 맡은 무협 액션영화 '협녀:칼의 기억'(협녀) 촬영을 마친 이병헌은 이달부터 해외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할리우드 진출작인 '지.아이.조' 3편의 촬영이 예정된 상황. 이병헌은 "이 시리즈와는 무조건 함께 한다"는 입장을 지키며 이르면 6~7월 할리우드로 향한다.

이병헌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협녀' 촬영에 집중하면서도 '지.아이.조' 시리즈의 제작사 파라마운트픽처스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촬영을 시작하는 3편 출연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액션 연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계에 따르면 할리우드에서 이병헌을 향한 신뢰는 지난해 '레드2' 개봉 이후 더욱 단단해졌다. 지난해 그가 주연한 '레드:더 레전드'가 예상을 깨고 국내에서만 3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데에는 이병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12일 "앞선 시리즈 때와 마찬가지로 '지.아이.조' 3편에선 스톱 웨도우 역을 그대로 이어간다"며 "아직 구체적인 촬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상반기에는 관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헌은 미국행에 앞서 일본에서 한류 다지기에 나선다. 25일과 26일 이틀간 오사카 오릭스 극장에서 대규모 팬미팅을 연다. 2월 후쿠오카, 요코하마 등 일본 5개 도시 팬미팅으로 모두 3만 관객을 불러 모은 그는 현지 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사카에서 앙코르 무대를 갖는다.

이해리 기자 gdf1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박유천 '협박은 안 통한다'

사진 유포 1억 요구 30대 여성 구속



'범죄엔 단호하게!'

연예계 스타들이 '불의'에 맞서는 태도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백지영, 강민경 등이 악성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합성 사진 등에 법적 대응을 한 데 이어 부당한 협박에도 단호하게 맞서고 있다.

그들 JYJ의 박유천(사진)이 지인과 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언론사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2월25일 서울 강남구 노성에서 습득한 휴대전화 속에서 박유천이 휴대전화 소유자로 보이는 지인과 찍은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박유천 측은 "문제될 내용도, 숨길 이유도 없다"며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작년 11월에 한효주의 옛 사진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던 전 매니저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한효주의 무명시절 매니저 등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들이 있다"며 한효주 아버지를 상대로 4억원을 요구했고, 팔로부터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들을 바로 경찰에 고발했다.

톱스타들이 사생활 관련 내용 등으로 협박을 받은 일은 과거에도 많았다. 스타들은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로도 이미지 손상을 입기에 협박에 응하거나 쉬쉬하곤 했다. 하지만 박유천과 한효주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더 큰 피해를 막고, 부당한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그동안 연예인들이 악플러나 루머 및 합성사진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청소녀이거나 용서를 빌었다는 이유로 선처해주면서 악순환이 계속됐다"면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결국엔 선처해준다'는 악플러들의 잘못된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gyumny@donga.com 트위터@ziodadi

'감격시대' 주연급 출연료도 미지급



'감격시대'는 파산시대?

보조출연자들도 3개월째 '빈손' 미지급 출연료만 1억8000만원 시청률 상승에도 심각한 내용

KBS 2TV '감격시대'가 시청률 상승세를 무색케 하는 내용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주인공 진세연의 작품 겹치기 출연 논란 이후 보조출연자들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주연급 연기자들도 제대로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출연자 관계자는 12일 "현재 조단 역 연기자들과 스태프의 출연료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주연급 연기자들도 대부분 정산을 못 받고 있는 상태다. 드라

마 초반부터 출연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사실상 모든 출연자와 스태프가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작사 레이엔모는 일단 17일과 31일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출연진과 약속을 한 상태다. 하지만 반복된 미지급에 일부 연기자들은 제작사에 지급보증서를 요청하거나 만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촬영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소득이 일정치 않은 보조출연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보조출연자들이 대거 소속된 한국예술에 따르면 '감격시대'에 출연한 1000여명의 연기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보조출연자들의 미지급 출연료는 약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기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방송

연기자노동조합도 최근 '감격시대'의 경기도 용인 세트를 방문해 출연료 미지급 사태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촬영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감격시대'는 방송 전부터 제작사가 변경되고 편성이 연기되는 시련을 겪은 바 있다. 방송이 시작된 후에도 작가 교체와 연기자 조기 하차, 진세연 겹치기 출연 등 작품 안팎으로 바람 잘 날 없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작품에 큰 오명을 남길 위기에 처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KBS 2TV 수목드라마 '감격시대'가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걸맞지 않은 참음으로 흔들리고 있다. 보조출연자에 이어 주연급 연기자들에게도 출연료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S



'별에서 온 그대' 영화로 만든다

중국 폭발적 반응 힘입어 기획 장태유PD 2시간용 재편집 한창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사진)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12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신드롬에 가까운 관심을 받고 있는 '별그대'가 영화 형식으로 다시 편집돼 6월 현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21부작 드라마를 2시간

용으로 재편집해 영화로 만들기 결정했다"면서 "정확한 개봉일이나 상영관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라이트 위주의 편집이 아니라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드는 것이다. 일부 장면을 추가하는 등 드라마 연출을 맡았던 장태유 PD가 한창 편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그대'의 영화화는 최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이른바 '양회(兩會)'에서 최고의 드라마로 언급될 정도로 현지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별그대' 현상에 주목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보일 줄 예상하지 못했다. '대장금' 이후 9년 만에 한류드라마가 조명받고 있다"면서 "그 붐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더 폭넓게 드라마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연예뉴스 스테이션

김희선·최시원·엑소 등 성룡 중국 자선공연 동참

연기자 김희선,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엑소 등 한류 스타들이 청룡(성룡)의 자선공연에 참석한다. 12일 청룡의 매니지먼트사 재키찬그룹코리아에 따르면 이들은 4월6일 중국 베이징 공인체육관에서 열리는 청룡 주최의 '2014 평화&러브&우정' 무대에 오른다. 청룡이 키우는 아이들 그룹 더블JC(JC)도 동참한다. 지난해 '청룡과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찬샹성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자선공연에는 박병의 지드래곤이 초청받았다.

경찰, '어벤져스2' 서울 촬영 교통대책 마련 분주



김수현(사진)의 출연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어벤져스2)의 서울 촬영을 앞두고 경찰이 교통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스카프트 요한스, 크리스 에반스 등 '어벤져스2' 출연진은 30일부터 4월12일까지 서울을 찾아 마포대교와 삼양DMC, 청담대교, 테헤란로, 강남역, 잠수교, 용산 일대에서 촬영을 시작한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촬영장소에 대한 교통 통제 및 제작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우성 첫 치정 멜로 영화 '마담 뵙덕' 첫 촬영



배우 정우성의 첫 치정 멜로 영화 '마담 뵙덕'(사진)이 5일 전라북도 남원의 한 놀이공원에서 촬영에 돌입했다. 영화는 고전 '심청전'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한 남자와 그를 사랑한 여자, 그리고 남자의 딸 사이에서 벌어지는 욕망과 집착, 파멸에 관한 이야기다. 정우성은 지방 도시로 내려온 대학교수 학규를 맡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휩싸이면서 시력은 물론 자신의 모든 걸 잃어가는 남자를 연기할 예정이다. '마담 뵙덕'은 여름계 개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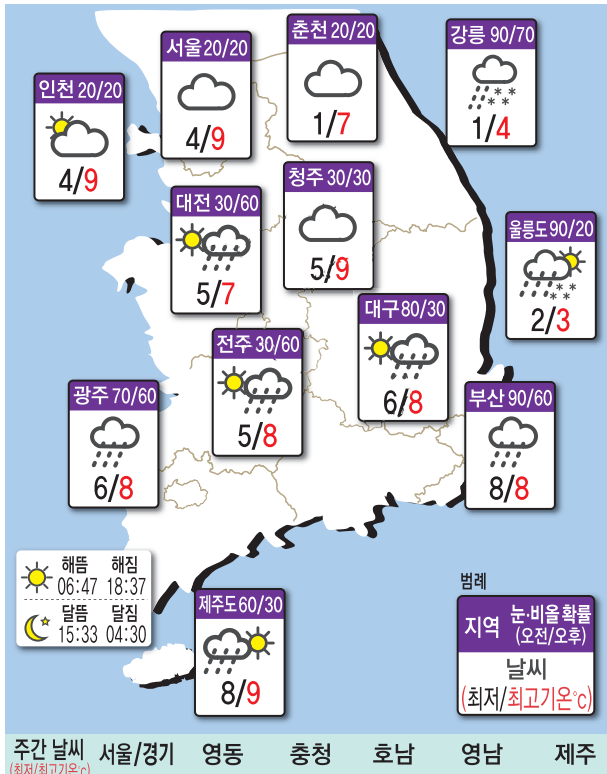
투에니원 '컴백홀' 유튜브 케이팝 뮤비 차트 1위

그들 투에니원의 정규 2집 타이틀곡 '컴백홀'이 3일부터 9일까지 유튜브의 케이팝 채널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뮤직비디오는 12일 오후 4시 448만4128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 편의 'SF영화 같다'는 평과 함께 빌보드, 팝머스트 등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컴백홀'은 2월27일 음원으로 공개되고 주요 음원 사이트 1위를 휩쓸며 뮤직비디오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김청조 기자 minigram@donga.com

오늘의 날씨

3월 13일 목요일 (음력 2월 13일)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주)110-7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